

**2025년 경기문화예술교육 통합공모
중견단체 확장지원 <펼쳐지는 꿈틀>
심의총평**

2025. 04. 07.

심의위원장	양 재현	[성명]
심의위원	계 대우	[성명]
심의위원	이 현호	[성명]
심의위원	김 일선	[성명]

2025년 경기문화예술교육 통합공모 중견단체 확장지원 <펼쳐지는 꿈틀> 심의총평

‘펼쳐지는 꿈틀’ 지원 사업은 예술적 실험과 더불어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예술단체의 가능성을 동시에 찾아보는 연결고리로서의 지원사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때문에 지원된 대부분 프로젝트의 의미가 매우 훌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원 사업의 방향성에서 선정이 엇갈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선정된 단체들의 의도나 의미들이 부족했다는 이유는 타당치 않은 것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펼쳐지는 꿈틀’ 지원사업과 프로젝트의 방향성이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 지원 사업에서 충분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의위원들의 다른 의견으로는 ‘펼쳐지는 꿈틀이 지향하는 다양한 주제와 형태의 예술 활동에 방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20개 팀이 선정되었으며, 안타깝게도 선정되지 못한 단체도 문화예술에 대한 높은 감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예술적 매소드가 거세된 프로토콜이나 모듈을 활용한 단체는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교육하는 예술가로서의 문제의식과 지역과의 연계, 예술교육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단체가 가진 철학과 이를 구현하는 진정성 등이 주요한 선정기준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신청한 60여 개 단체 모두가 공모사업의 명칭에 걸맞게 문화예술교육 중견 단체로서 사업에 대한 취지 이해와 지원신청서상의 계획안이 매우 수준 이상의 훌륭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 하였다.’ 등이 있었습니다.

선정된 단체들은 기획된 의도와 의미에 맞는 프로젝트로서의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훌륭한 결과로 단체의 활동을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5. 4. 7.

심의위원 양재혁, 김인설, 이효순, 최대원